

2025 경기 문학작가 확장지원 프로젝트 심사평

본 사업은 저마다 문학적 역량을 공인받은 중견 작가들의 창작 역량을 확장하고자 기획된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총 87편의 응모작 중 1차 행정심의와 2차 서류심의를 거쳐 9편이 최종심의에 올랐다. 이들은 모두 등단 이후 10년 이상 꾸준히 창작활동을 이어오며 우리 문단의 중심을 묵묵히 지탱해온 작가들이다.

최종심의에서는 각 작가가 제출한 신작 창작기획서의 독창성, 구성의 치밀함, 표현의 명료함, 그리고 기획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 지닌 문학적 완성도와 사회적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본 사업의 지향성에 부합하는 예술적 진정성과 문제의식, 그리고 향후 창작활동의 확장 가능성, 독자와의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대효과 역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었다.

심의위원들은 모든 작가가 각자의 자리에서 뛰어난 예술적 성취와 경륜을 보여주었기에, 우열을 가리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과 논의를 거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이 독자와의 만남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 읽히는 글로 나아가야 한다는 창작의 본질을 기준으로 삼아, 독창성과 확장성, 독자적 호소력에서 돋보인 세 작가를 최종 선정하였다.

세 작가의 작품은 기존 문단의 관습적 해석에서 벗어나 동시대의 감각과 언어를 새롭게 갱신하며, 문학이 여전히 사회와 개인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음을 증명했다. 또한 그들의 시도는 다소 위태로울지라도 예술의 본질인 '새로운 모색'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학에 대한 초심과 열정을 잃지 않은 모든 응모 작가들에게 깊은 존경과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 한국문학의 뿌리를 지탱하는 여러분의 지속적인 창작이 곧 K-문화의 근간을 이루며, 우리 문학의 미래를 밝혀나갈 것이라 확신한다.

2025.10.27.

3차 최종 선정위원회

심의위원 김남일

심의위원 김수이

심의위원 박경장

2차 서류심의

심의위원 고봉준

심의위원 신수정

심의위원 오창은